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치유의 해, 성체를 공경하며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제주주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2020. 09. 20. (가해) 제2233호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 9,24)



‘103위 한국 순교 성인화, 문학진 토마스, 1977년, 서울대교구 혜화동성당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발행인 | 조환길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편집 | 문화홍보국 인쇄 | 대건인쇄출판사 등록 | 2017. 11. 13 대구 다04660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전화 | (053)250-3048~9 이메일 | jubo@dgca.or.kr 홈페이지 | www.daegu.jubo.or.kr

존재의 이유를 묻게 하는 분



한티피정의집 관장 | 여영환 오토 신부

죽음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우리가 왜 순교자를 본받자 하겠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면 발길이 저절로 한티의 순교자 묘역으로 옮겨지곤 합니다. 돌더미 속에도 무덤이 있고 비탈진 응달에도 무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37기의 묘를 따라 순례길을 걷다 보면 골치 아팠던 일과 생각들이 조금씩 내려집니다. 무덤가에 소복이 피어난 구절초와 물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흩어진 옹기와 사기 파편들은 시간의 수레바퀴를 박해의 현장 속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대부분 이름도 성도 알 수 없지만 한티의 하늘과 땅은 여전히 그때 그분들이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니까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만 명이 넘는 순교자를 주셨습니다. 주님께 목숨을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없기에 교회는 순교를 최고의 증거로 여깁니다. 순교자들은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신 분들이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고통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마음에 거둬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 9,23)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자기를 버리기는 어렵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기는 더 고통스러울 때, 앞서 이 길을 가신 순교자들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구나 만여 명의 순교자들 가운데 팔천여 명은 주님 말고는 이름조차 모르는 분들이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곤 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 세상 것을 탐하지 않고, 하늘의 것 하나만을 탐하는 분들을 통해 매번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는 그런 분들의 삶을 통해 당신의 현존을 강하게 드러내시니까요. 그런 분들을 보고 듣고 만나게 될 때 주님께 대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곤 합니다. 한티의 순교자들도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순교하신지 이미 백오십 년이 지났지만 그분들이 사셨던 삶과 죽음 그리고 영생을 생각하면 흐트러진 삶이 다시 추슬러지니까요. 순교자들은 우리 자신이 과연 무엇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되묻도록 해주니까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가엾은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궤문**

진짜 나의 이야기하기

- '나'로부터 시작하는 치유 : 자기 탐색

교구 소람상담소장 | 김종섭 토마스 신부

신학생 때 교수 신부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지 아냐?'고 물으신 기억이 납니다. 뭘까요? 그것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 자기 자신의 이야기는 가장 재미있고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흥미진진합니다.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내가 말이야, 내 생각은, 우리 애가 ...' 등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내가 경험한 일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야기 내용이 남-타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어서 내 이야기로 착각하여 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 대부분은 '너, 그-남'이 이렇게 저렇게 해 주었으면, 좀 변했으면(내 마음에 들게), 상황이 이런 방향으로 되었으면 하는 자신의 속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바라고 이야기를 하여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정작 해야만 하는 '진짜 내 이야기'는 하지 못해 의미 없고 공허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는데, '나 말고 나 밖에 있는' 이야기들이 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자기 보호가 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자기 이야기, 자기표현을 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억누르고 억압하며 숨기게 됩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 가면을 쓰고 회피합니다. 말 잘 듣는 아이, 착한 사람 되기, 조용히 있기, 표현하지 않기, 적 만들지 않기 등으로 가면을 쓰거나 혹은 관계 갖지 않기, 하기 싫어하기, 포기하기, 외면하기, 선 긋기 등으로 회피합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 자신을 만날 때면 스스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는 그때 어떤 감정인데?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은 뭐야? 그 상황에서 너의 생각은?' 간단하지만 정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 당황스럽고 심지어 숨겨놓은 솔직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이 들킨 것처럼 여겨져 불편합니다. 그리고 나면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잘했다.'라고 말해줍니다. 자기 자신을 만나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자기애)할 수 있고, 존중(자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해 줄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필문**

추상(追想)

교구 노동사목부장 | 김호균 마르코 신부

작년부터 장애인들이 사는 작은 공동체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곤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다고 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까지 저는 양심과 신앙의 외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내가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너도 나처럼 살라고 강요하지는 않으렵니다.
그 말에는 억압이라는 돌덩이가 들어있으니까요.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게 되고, 말하기 때문에 행동이 따라다닙니다.
저는 말하기보다 속으로 생각하고 겉으로 행동하렵니다.
말은 가볍고, 생각은 깊이가 있으며, 행동은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토한 말에 대해 그 오물을 다시 먹는 무책임한 사람으로 살지 않으렵니다.
그렇기에 더욱 쉽게 말할 수 없고, 말을 하더라도 해 낼 수 있는 말만 하렵니다.

변명할 일이 많더라도 변명하지 않으렵니다.
변명하게 되면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정당화하게 되고 반성과 통회의 시간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로 변명은 그 구실을 만들어 준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생기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고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한 책임만 따지려 합니다. 저는 입을 다물렵니다.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수습해야 할 일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속함 속에는 경솔함이 들어있고 신중함 속에는 때늦음이 있기에
항상 생각하고, 묻고, 듣고, 기도한 뒤에 결정하렵니다.
그리하여 치우치지 않음으로 최소한의 아픔으로 다가가렵니다.

하느님은 아시겠지요. **김호균**



배관겸 프란치스코 (1740?~1800년)

충청도 당진의 진목(현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항리) 출신인 배(裵)관겸 프란치스코는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지 얼마 안 되어 입교하였다. 관명은 '발은'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고향 진목은 충청도에서 처음으로 천주교 신앙이 전파된 내포 지역 안에 있었다.

배 프란치스코는 1791년의 신해박해로 체포된 적이 있었다. 이때 그는 신앙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석방되었으나, 집으로 돌아와서는 곧바로 자신의 죄를 진실히 뉘우치고 다시 열심히 하느님을 섬겼다. 이후 그는 서산으로 이주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고향 이웃에 있던 면천의 양제(현 충남 당진군 순성면 양유리)로 돌아와 교우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룩하였다.

1794년 말 조선에 입국한 주 야고보 신부는 다음 해부터 지방의 신앙 공동체를 순방하기 시작하였다. 그 때 배 프란치스코도 이 소식을 들었다. 이에 그는 1798년에 신부를 모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교우들과 함께 양제 마을 안에 강당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이미 정사박해가 충청도 지역을 휩쓸고 있을 때였다. 실제로 양제의 교우들이 강당을 마련한 그해 10월 3일, 한 밀고자가 포졸들을 이끌고 양제 마을로 들이닥쳤다.

포졸들은 즉시 배 프란치스코를 체포하여 홍주로 압송하였다. 관장은 그에게 혹독한 형벌을 가하면서 '교우들이 있는 곳을 대고, 천주교 서적을 갖다 바치라'고 강요를 하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에 홍주 관장은 화가 나서 사실 그대로를 공주 감사에게 보고하였고, 감사는 프란치스코를 청주 병영(兵營)으로 이송하여 문초하도록 하였다.

청주에 이르러 배 프란치스코는 원 야고보 등 다른 교우들을 만나 고통을 함께 하였다. 그의 신앙은 여전히 굳건하였으며, 온몸의 살이 헤어지고 팔다리가 부러져 뼈가 드러날 정도가 되어서도 그는 영웅적인 인내로 모든 것을 참아냈다. 그러나 형리들의 매질이 계속되면서 끝내 이를 이겨 내지 못하고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00년 1월 7일(음력 1799년 12월 13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약 60세가량이었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지혜 3,1-9	제 2 독서	로마 8,31-39	복 음	루카 9,23-26.
화 답 송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교구장 동정

9. 15(화) | 5대리구 사제연수

9. 17(목) | 2대리구 사제연수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목사례 및 제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우리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세상의 변화** 속에 우리 신앙생활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공동체 미사가 중단되거나 미사가 재개되더라도 제한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교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잘 대응했던 **본당공동체(기관, 단체)의 모범적인 사목사례나 제안**하고 싶은 바를 보내주시시오. 의견을 보내실 때 본인의 연락처(H.P)를 알려주시면 작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 9월 21일(월)

보내실 곳 :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국

① E-mail : dgsamok@hanmail.net / ② FAX : 053-250-3054

③ 주소 : 우) 4196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대구대교구청 별관 사목국

문의 : 053-250-3051



코로나19 종식의 그날까지

박성규 엘리지오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미사 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9월 21일(월) 10:30 범어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9월 21일(월) 11:00 죽도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9월 21일(월) 11:00 평화성당	한티순교자 현양후원회 월례미사	9월 26일(토) 11:00 순례자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9월 21일(월) 11:00 계산성당	-	-

성소 | 피정

<http://www.nongun.kr>

*교구 모든 예비신학생을 위한 미사와 모임
(학부모님도 오실 수 있습니다.)

안동교구 농은수련원 소울스테이

주제: 나를 찾는 여행

내용: 나 보듬기, 자연 안에 쉬

대상: 개인, 가족, 지인

문의: (054)652-0591 / (010)2785-0591

행사 | 모임

예비신학교 개학 미사 및 모임

일시: 9.20(일) 14:00

대상: 중1~대학·일반

1~5대리구: 성모당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9.21(월) 1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문의: (010)2780-4535

제7회 노인의 날 사랑나눔 이벤트

기간 : 9.21.(월)~10.8(목) / 대상 : 신자 누구나

방법 :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여 메일(dgfamily@dgca.or.kr) 발송 및 인스타그램 업로드 등 (<http://cafe.daum.net/noin0404> 참조)

발표 : 10월 13일(화) 가정복음화국 카페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개별연락)

시상 : 참가한 모든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감동이나 재미가 담긴 독창적인 작품을 보내주신 10분께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 : 교구 가정복음화국, 053)250-3077, 3114

※ 보내신 영상이나 사진은 추후 금빛신문에 게재 및 콘텐츠 제작에 활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서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이 원 의 료 기

협합계·혈당계·당뇨소모성재료
휠체어·주사기·보호대·뜸·부항기
주열가·체온계·육창매트·환자용품
안마기·실버카·산소치료가·찜질기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니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2513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관절통, 스포츠 통증
프롤로 재생 주사, 도수 치료

통증의학전문-원장 정 순 우 (요셉)
범어네거리 두산위더제네시스가 3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8번 출구)

(주)한투어

한투어

성지순례전문

☎ 053)427-7090

안상덕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DCMC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DAEGU CATHOLIC UNIV. MEDICAL CENTER

장례식장 053)650-4444/657-4444

성요셉요양병원

장례식장 053)617-3644

가톨릭 신자 시설사용료 20% 할인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춤추게 하라!**

다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 신축 확장 이전 —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_루카

T. 555-5520 죽전역 4번 출구

35년 경험과 기도로 치료하는
Since 1985

달성피부과

아토피·만성피부
보톡스·탈모

손재경(다미아노) · 김인주(베지나)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2번출구

대구연세안과

백내장/노안/라식/녹내장/황반변성

대표원장 / 의료봉사
(현 연세대 외래교수) **박종원** (소시모)

인과전문의 **장주현** (비비안나)·**이무일**

효성병원 옆 대동M타워 4,5,6층

☎ 053)626-8881~5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서준영(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서인석(바오로) 신부
2022년 9월 20일

교육 | 모집 | 기타

대구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발성과 합창: 월, 목 14:00 / 19:00

대구CEO합창단: 화 14:00 / 19:30

장소: 대가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문의: (010)3512-1565

정원 5명 소그룹으로 수업합니다.

35회 글로벌 온앤오프 국내 영어캠프

일시: 2021.1.2~30(4주, 6주, 8주)

설명회: 10.24(토) 14:00

대상: 초등 3학년~중등 3학년

주최: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난타·교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색소폰, 우쿨렐레, 재대꽃꽃이, 발성법,

지휘레슨, 서양화, 사범자격과정꽃꽃이,

가곡성가, 플룻, 창작사진, 섬유공예,

정리수납전문가과정 / 신청: 254-6115

꽃동네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 모집

가톨릭 보건·복지·상담심리 특성화 대학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원서접수: 9.23(수)~28(월)

모집: 사회복지, 상담심리, 간호학과

문의: (043)270-0100

목포가톨릭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취업률 전국 4년제 3위, 광주·전남 1위

원서접수: 9.23(수)~28(월)

모집: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과

문의: 입학처, (061)280-5150

부산가톨릭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접수: 9.23(수) 9:00~28(월) 18:00

모집: 간호학과 외 17개 학과

전형: 성직자 추천전형 등 8개 전형

문의: 권혁민(루카) 입학사정관,

(051)510-0705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입소어르신 모집

2018년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6-2141 / 615-2141

채용 | 안내

교구 전산실 직원 채용

인원: 1명

상세: 교구 홈페이지 참조

문의: 교구 전산실, 250-3092~4

한국SOS어린이마을 부설

동촌성모유치원 회계 사무직 채용

자격: 회계사무 컴퓨터활용 우수자

(유아교육관련종사경험자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 제출

dck5248@hanmail.net

문의: 981-524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직원(정규직) 채용

분야: 사무직(1명), 조리직(1명)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림

마감: 10.30(금) 14:00 접수 서류까지

이메일 문의: mano@cbck.kr

군위묘원 성묘 안내

추석 당일은 많은 성묘객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추석을 전

후해서 성묘를 하여 주시고, 성묘

후 귀가 시, 일방통행 도로를 반드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위묘원 관리비(2차분) 납부 안내

2011.1.1 이전에 장례를 하신 묘주께

서는 묘원 관리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미납시, 무연분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고자의 주소

가 변경되었을 경우 교구청 관리과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구 관리과, 250-3003

청도성모솔숲마을 자연치유센터 오픈

대상: 자연 속에서 휴양이 필요하신 분

(암 환자 환영)

문의: (054)373-3955 / (010)5225-4538

일월매트총판 | 온수매트
한일 의료기 | 게르마늄매트
소금좌욕기 | 전자제품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유통단지 45 전차관 1층 239호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백두병원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백억두 아오스팀, 배성근 베드로
유천치안센터 옆 T. 425-5919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인검진 지정병원 / 위, 대장 내시경

원룸, 투룸 용달이사
한약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구 313-2484

HS 의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상운(안젤로)
송정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37년 전통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렐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743-4488 M. 010-3530-7467

www.pjumclinic.co.kr
이애현 피음산부인과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혈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

칠곡속내과
CHIL-GOK SOK INTERNAL MEDICINE
위·대장내시경, 용종절제술
만성질환클리닉, 성인예방접종
원장 이정수(요한) T. 053)327-0300
대구 3호선 필거역 4번 출구

암 · 재활 · 소화기 · 통증 · 건강검진
Happy! 2인1병의원
의사와 환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입구 | 대표번호 053)670-6000